정보

개요
곡명: The Hebrides Overture, Op. 26 “Fingal’s Cave”
작곡가: Felix Mendelssohn (1809–1847)
장르 ·범위: 단악장 관현악 연주회용 서곡 전곡. 음악의 흐름은 1835년 출판된 관현악 총보 계열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작곡: 1829년 8월 첫 악상, 1830년 Rome 자필 완성, 1832–1833년 개정
초연: 1832년 5월 14일, London Philharmonic Society. 공연 프로그램에는 Thomas Attwood가 지휘자로 적혀 있다.

IMSLP: Die Hebriden, Op. 26

Wikipedia: The Hebrides (overture)

Felix Mendelssohn의 The Hebrides Overture, Op. 26은 독립적으로 연주하는 단악장 관현악 서곡이다. 널리 연주되는 1835년 총보 계열의 전곡에서는 첫 주제와 두 번째 주제의 제시, 발전, 재현과 마무리가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보다 앞선 1830년 Rome 자필과 1832년 London 개정은 같은 악상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길이와 전개를 남겼다.

여행에서 시작된 악상과 세 가지 이름

1829년 여름 Mendelssohn은 친구 Carl Klingemann과 스코틀랜드 서부를 여행했다. 8월 7일 Mull 섬의 Tobermory에서 가족에게 쓴 편지에는 관현악 편성을 암시하는 21마디의 악상이 들어 있다. 오늘날 서곡의 첫머리로 이어지는 이 스케치는 이튿날 두 사람이 Staffa 섬의 Fingal’s Cave를 방문하기 전에 쓰였다. Klingemann의 편지에는 현무암 기둥 사이로 파도가 울리던 동굴과 배 멀미에 시달린 동행인의 모습이 함께 남아 있다. 그 여행의 인상은 작품의 출발점이지만 , 유명한 동굴을 본 즉시 서곡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날짜와 맞지 않는다.

작품의 이름도 작곡과 출판을 거치며 달라졌다. Mendelssohn은 1830년 편지에서 Ouvertüre zu der einsamen Insel라는 제목을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나 Morgan Library가 보존한 1830년 12월 16일 Rome 자필의 현존 표제는 Die Hebriden Ouvertüre다. 1832년 London 초연은 Overture to the Isles of Fingal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1834년 관현악 파트에는 Die Hebriden, 1835년 총보에는 Die Fingals-Höhle가 인쇄되었다 . 이 여러 제목은 별개의 서곡이 아니라, 헤브리디스 제도와 Staffa의 동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내세운 같은 작품의 자료들이다 .

Rome 자필에서 London 공연까지

여행의 첫 악상이 연주 가능한 서곡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다. Mendelssohn은 Rome에서 작업을 이어 1830년 12월 16일 관현악 총보를 완성했다. 그 뒤에도 중간부와 발전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1832년 1월 Fanny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D major의 강한 중간부와 대위법에 치우친 발전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고래기름과 갈매기, 소금에 절인 대구를 떠올리게 하는 바다의 인상이 대위법보다 더 살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썼다. 5월 5일 가족에게는 빠른 중간부를 덜어 내고 총보를 다시 쓰고 있다고 전했다. Christopher Hogwood의 비평판 서문은 이 편지들과 악보 자료를 나란히 놓으며, 반복과 모방이 줄고 목관의 비교적
드문드문한 진행이 들어온 곳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중이던 서곡은 1832년 5월 14일 London Philharmonic Society 연주회에서 처음 관현악으로 울렸다. 당시 인쇄 프로그램에는 Thomas Attwood가 지휘자로 실렸지만, Hogwood는 관련 회고에 비추어 Mendelssohn이 실제로 지휘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당시 비평도 한쪽으로 모이지 않았다. Athenaeum은 풍경 묘사로서 실패했다고 보았고, Harmonicon은 바람과 파도를 들었다. 서곡은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았다. 6월 20일 London 자필이 만들어졌고 , 출판을 앞두고 수정이 더해졌다. 첫 공연에서 들린 음악과 오늘날 흔히 보는 악보를 같은 텍스트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악장 안에서 변하는 두 주제

1835년 총보 계열은 B minor의 Allegro moderato로 시작한다. 비올라 ·첼로 ·바순이 내는 짧은 오르내림 위로 현악과 목관의 긴 음이 겹친다. Howard Posner의 Hollywood Bowl 해설은 여기서 나온 짧은 재료가 새로운 선율과 이어지는 관현악의 움직임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파도의 출렁임을 떠올리는 설명도 이 첫머리에서 출발한다. 악보에는 바람, 동굴, 배의 출현을 차례로 지정한 장면 목록이 없으며, 관현악은 같은 재료를 다른 조성과 음색으로 옮겨 가며 전개한다.

첼로와 바순이 내놓는 넓은 두 번째 주제에서는 중심이 D major로 옮겨 간다. 현악의 움직이는 음형이 선율 아래에 남아 있어, 앞부분의 짧은 동기와 새로운 선율 사이에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두 재료가 발전부에서 더 짧은 단위로 갈라지고 금관과 팀파니가 합세하면, 서곡은 처음의 낮고 조심스러운 소리에서 훨씬 강한
관현악의 움직임으로 확대된다. 재현부는 B minor의 출발점으로 돌아오지만 앞부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후반에는 두 번째 주제가 클라리넷의 음색으로 다시 들린다. 그 뒤 붙은 Animato와 마지막의 빠른 음형이 결말을 이끈다. 한 악장의 곡 안에서 소나타 형식에 가까운 움직임과 여행지의 인상이 함께 이어진다.

표제는 이 소리들에 해석의 방향을 제공했다. 동굴과 바다뿐 아니라 Ossian의 전승도 1830년대 비평에서
작품과 연결되었다 . Hogwood가 인용한 1833년 Berlin 비평은 헤브리디스의 풍경을 Ossian의 시를
연상시키는 ‘거친 낭만성 ’과 묶었다. 이것은 당대 청중이 서곡을 받아들인 한 방식이다. 반면 1829년 편지의 악상과 악보의 주제 전개는 특정 전투나 신화적 사건을 순서대로 지정하지 않는다.

출판 정보와 자료

인쇄 순서를 보면 ‘1833년 초판 ’이라는 말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먼저 나온 것은 Mendelssohn이 마련한 피아노 4손 편곡으로, 1833년 London의 Mori & Lavenu와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에서 출판되었다 . Breitkopf & Härtel의 관현악 파트는 1834년, 첫 관현악 총보는 1835년에 발행되었다 . 총보가 포함된 서곡집에는 프로이센 왕세자, 후일 Friedrich Wilhelm IV에게 바치는 헌정이 붙었다. 편곡판의 첫 발행 연도를 관현악 총보의 발행 연도로 옮기면 작품의 출판 순서가 달라진다.

자필과 인쇄본 사이에도 차이가 남았다. Morgan Library의 1830년 총보와 Bodleian Libraries의 1832년 6 월 20일 총보는 각각의 시기를 보여 주지만, 두 자필 모두 나중에 수정이 더해진 작업 자료다. 1834년 파트와 1835년 총보 역시 세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2004년 Christopher Hogwood가 편집한 Bärenreiter 판은 Rome 계열과 London 계열을 각각 두 변형과 함께 제시해, 한 가지 통용판으로 가려졌던 개정 과정을 연주 자료로 되돌렸다. 그에 앞선 Julius Rietz의 전집판은 여러 출처를 합쳐 후대에 익숙해진 텍스트를 만들었다. 따라서 악보에 적힌 세부 지시가 Mendelssohn의 마지막 수정인지, Rietz의 편집인지도 연주할 판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소요 시간

Hollywood Bowl은 약 10분으로 안내한다. 통용판의 녹음은 대체로 9~11분 안팎이지만 , 1830년 Rome판을 실은 Alexis Kossenko의 Aparté 음반은 약 11분 30초다. 이 초기판에는 후에 줄거나 바뀐 대목이 있으므로, 두 판본의 시간 차이를 지휘자의 빠르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한 악장 작품이어서 별도의 악장별 소요 시간은 없다.

편성

1835년 관현악 총보 계열의 기본 편성은 Flute 2, Oboe 2, Clarinet 2, Bassoon 2, Horn 2, Trumpet 2, Timpani, 현악 5부다. 1833년 피아노 4손판은 이 관현악 편성의 초판이 아니라 별도의 편곡이다.

Hogwood의 비평판 서문은 두 자필의 악기 표기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Rome 계열은 처음에 C Clarinet을 쓰고 후반에 A Clarinet으로 옮기는 반면, London 최종 인쇄판은 A Clarinet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원곡의 목관 인원은 같아도 판본에 따라 준비할 악기와 파트가 달라질 수 있다.

작곡가의 빠르기 지시와 후대 편집

마지막 부분의 Animato는 이 작품에서 특히 오해를 낳은 표기다. 1835년 1월 Mendelssohn은 Henriette Voigt에게 보낸 답장에서, Leipzig 공연에서 끝부분을 처음보다 빠르게 연주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썼다. 그가 Animato로 요구한 것은 박자를 밀어 올리는 più stretto가 아니라 활기의 증가였다. Hogwood가 편집한 판은 이 편지와 1835년 인쇄 총보의 in Tempo를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Animato를 곧바로 가속 지시로 읽는 관행은 작곡가의 설명과 구별해야 한다.

재현부에서 클라리넷이 두 번째 주제를 다시 부를 때 보이는 tranquillo assai도 판본을 드러낸다. Hogwood 의 서문과 James Garratt의 판본 서평에 따르면 이 말은 1835년 Mendelssohn 총보가 아니라 Rietz의 사후 전집판에서 덧붙었다. Rietz판을 쓰는 공연에서는 이 추가 표기가 해당 대목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 Rome판에서는 두 번째 주제에 이르기 전 중간부와 모방적 전개도 더 길다. 빠르기와 프레이징의 선택은 어느 시기의 음악을 연주하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2010년 Playbill 인터뷰에서 Riccardo Chailly는 익숙한 London 계열과 상당히 다른 Rome 계열을 Gewandhausorchester와 연주한 이유를 두 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판을
후대판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Alexis Kossenko도 1830년판을 처음 지휘했을 때 익숙한 짧은 경로 대신 더 많은 대목을 거쳐 가는 듯해 무겁게 느꼈다고 음반 부클릿에서 회고했다. 이후 그는 그 길이가

초기판의 결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Kossenko는 자신의 시대악기 공연에서 현악의 비브라토를
절제해 각각의 음이 멈춰 서지 않고 선율이 다음 음으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Rome판을 선택한
한 지휘자가 길이와 음색을 함께 다룬 구체적인 사례다.

서로 다른 판본을 들려주는 녹음

Riccardo Chailly와 Gewandhausorchester가 2006년에 녹음한 Hogwood 편집 Rome판은 Decca의 2009 년 Mendelssohn Discoveries에 수록되었다 . Roger Nichols는 BBC Music Magazine에서 같은 주제를
쓰면서도 익숙한 후기판과 상당히 다른 음악이라고 평가했다. 이 녹음에서는 후대에 줄거나 바뀐 중간부와
발전부를 관현악으로 들을 수 있다. Kossenko와 Les Ambassadeurs–La Grande Écurie가 2026년 Aparté AP347에 실은 Rome판은 같은 초기 계열을 시대악기로 연주한 또 다른 사례다.

관현악의 대비를 살펴볼 다른 음반으로는 Claudio Abbado와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Deutsche Grammophon 서곡집, John Eliot Gardiner와 같은 악단의 2014년 LSO Live 공연이 있다. Ralph Moore는 Abbado의 녹음에서 조용한 첫머리와 힘 있게 커지는 절정의 대비를 짚었다. Gardiner의 Barbican 공연은 2014년 1월 21일 녹음되었다 . 두 음반의 공식 소개는 지휘자와 공연 ·발매 정보를 확인해 주지만 사용한 세부 판본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녹음을 1835년 총보나 Rietz판의 특정 이형으로 확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Christopher Hogwood, Bärenreiter BA 9053 비평판 서문: 1829년 편지, 1830–1835년 개정 ·
초연 ·출판, 1832년과 1835년 작곡가 편지, 클라리넷과 빠르기 표기의 차이.
The Morgan Library & Museum, 1830년 자필 총보: Rome 자필의 날짜와 현존 표제.

Bärenreiter, Hogwood 비평판 안내: Rome·London 계열과 각 변형의 수록 범위.

Hollywood Bowl / LA Phil, Howard Posner의 작품 해설: 단악장 구성, 편성 ·시간, 두 주제와
관현악의 진행.
James Garratt, Hogwood 판 서평: 자필 ·인쇄본과 Rietz판의 차이, 후대 tranquillo assai 표기.

Riccardo Chailly, Playbill 인터뷰, Decca, Mendelssohn Discoveries, Roger Nichols, BBC

Music Magazine 음반평: Rome판의 선택, 2006년 녹음과 비평.

Aparté AP347, Alexis Kossenko 인터뷰와 트랙 정보, 발매 정보: 초기판의 길이, 비브라토와
프레이징에 관한 지휘자의 직접 설명.
Ralph Moore, Abbado·LSO 서곡집 음반평, LSO Live, Gardiner·LSO 음반: 통용 계열 녹음의
평가와 공연 기록.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37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4:37 UTC by 안준영